

# ACE사업 참여 대학의 핵심역량 및 실천전략에서의 교육적 함의

이민정(李敏靜)\*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ACE(Advanced of College Education)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이 대학들이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그 핵심역량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전략들이 지닌 교육적 함의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2015학년도에 참여한 42개교의 ACE사업 참여 대학들이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고등교육단계에서 육성해야 할 역량으로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역량은 지방 ACE사업 참여대학 한곳을 제외한 41개교(97.6%)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융합역량’이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33개교(78.6%)의 대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성역량’ 29개교(69.0%), ‘의사소통역량’과 ‘전공직무역량’ 각 24개교(57.1%), ‘리더십 역량’은 22개교(52.4%)의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사업 참여대학에서 모두 낮게 나타난 핵심역량은 ‘문화예술역량’으로서 소재지별, 규모별 강조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ACE사업 참여대학들의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에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본 결과, 창의성과 총체적 사유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융·복합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액션러닝, PBL, TBL, CBL 등 학습자의 실질적인 능력습득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과 학습자의 수행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교과과정을 보완, 심화함으로써 학습자의 핵심역량 함양을 조력하고 있었다. 또한, 선도적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습자의 핵심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닌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방향제시, 역량기반 고등 교육과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대학들이 핵심역량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고등교육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적 함의

## I. 서론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 및 대학의 등장, 고등교육 국제화와 대학교육 비용의 급증 등 지난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안팎의 도전적 과제는 대학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최정윤, 채재은, 2013)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질과 적합성에 대해 고등교육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적자원이 급부상함에 따라 '인적자원이 구비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량은 무엇인가'의 질문은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최근 지식기반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길러야 할 자질로서 학문적·실천적으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개념(박민정, 2008; 소경희, 2010; 진미석 외, 2010)이기도 하다.

이미 전통적인 고등교육 강국들은 최근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Center for Quality Assurance in International Education, 2001; Campbell & van der Wende, 2000). 즉,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정의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렇듯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체제는 세계적 동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 모두 실질적인 조치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질 높은 학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에서도 학부교육을 통해 소속 학생들에게 재학 중 얼마만한 부가가치(valued-added effect)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변기용, 이석영, 서담이, 2016).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부터 정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이하 ACE사업)'은 대학교육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ACE사업에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정립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핵심역량 제고를 가능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ACE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고등교육을 핵심역량 교육으로 인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ACE사업에 대한 각 대학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ACE사업의 지

원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부교육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모델 창출과 발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준으로 ACE사업은 시행 8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 존재하는 연구 또한 정책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ACE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역량 기반에서의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핵심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들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교육과정 도입에 있어 교육적 실천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고등교육에서의 핵심역량

핵심역량은 학습자들이 미래사회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전문성의 의미하며(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이러한 핵심역량이 교육혁신의 담론으로 형성된 계기를 마련한 연구는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 착안,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조사하여 의미를 명시함으로써 각국의 교육현장에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핵심역량을 '특정 맥락에서의 복합적인 요구를 사회, 심리학적 자원(기술과 태도 포함)을 통해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핵심역량을 참여하는 조건으로서 (1)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폭넓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2)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구들에게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3) 성공적인 삶을 위해 모든 개개인에게 중요한 능력이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ychen & Salganik, 2003). 이와 더불어 다음과 <표 1>과 같이 세 가지 범주에서 아홉 가지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표 1> DeSeCo의 핵심역량

범주	강조점	핵심역량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Using Tools Interactively)	개인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언어, 상징, 텍스트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질적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다원화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질적 배경을 지닌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함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 팀에서 일하고 협동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행동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Acting Autonomously)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함	큰 맥락에서 보고 행동하는 능력 생애계획과 개인적 과업을 설정·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주장하는 능력

이후로도 ‘OECD의 ALL(Adult Literacy & Life Skills Survey),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Twenty-First Century Skills Project), PIAC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등의 연구에서 성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역량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생애능력연구(life competency)’는 핵심역량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애능력을 전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주어야 할 핵심능력을 생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단계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2, 2004).

<표 2> 고등교육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능력

핵심능력	구성요인
전공지식	- 전공 이론적 기초 - 전공분야 지식의 실용적 적용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예측과 추리력 - 단편적 지식의 종합능력
의사소통능력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 기본 문해력(말하기·읽기·쓰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자발적인 목표설정과 학습동기 - 자신감과 자존감 -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 능력 -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
리더십	- 구성원 간 갈등조율능력 - 뚜렷한 주관과 추진력 - 조직의 비전 제시 - 책임감과 도덕성
문제해결력	-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능력 -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의사결정력 - 사고의 유연성 - 독립심 - 문제원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력
협동능력	- 타인에 대한 지원과 신뢰 - 상호의견 교환과 합의점 도출 - 다양한 문화와 가치체계에 대한 존중

이병식, 최정윤(2008)의 연구에서는 고등교육단계에서 육성해야 할 핵심능력으로서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인지적 영역에는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수리적 문제분석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비인지적 영역에는 자아개념과 태도 등 정의적 측면의 발달과 대인관계, 자기관리 역량을 포함시켰다(최정윤, 이병식, 2009).

김동일 외(2009)의 연구에서는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와 내용분석을 통해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표 3>과 같이 도출하고, 하위범주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3>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

핵심능력	하위범주능력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 전공 이론적 기초 - 전공분야 지식의 실용적 적용
논리적 사고력	- 종합적·통합적 사고력 - 분석력 - 합리적 판단력
학습능력	- 외국어능력 - 정보처리기술 및 활용능력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자발적인 목표설정과 학습동기 - 자신감과 자존감 - 정보처리 및 기술 활용 능력 -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
창의성	- 새로운 사고 - 적응력
리더십	- 의사결정능력 - 추진력 - 전체 조망능력 - 도전정신
대인관계능력	- 의사소통능력 - 협력적 관계 형성능력 - 개방성
가치관 및 태도	- 공동체의식 - 도덕성 - 배려

한편, 대학교육의 창의인재 양성 실태 및 조사연구(최상덕 외, 2011)에서는 21세기 요구되는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대학생의 역량으로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협동심 및 리더십, 공동체의식 및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계획능력 및 경력개발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등교육단계에서 육성되어야 주요역량으로서 전공지식,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공동체의식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핵심역량과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교육부(2015)에 따르면,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은 2010년부터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참여하여 4년간 지원함으로써 학부교육 선도모형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과 공동의 비전, 목표 하에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ACE사업의 목적은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모델의 창출과 정착을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을 중점 지원하고, 창의융합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21세기형 학부교육의 선진화에 있다.

ACE사업의 참여 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원칙은 일정 수의 대학을 소재지(수도권과 지방) 및 규모(대규모: 1만 명 이상, 중소규모: 1만 명 미만)로 구분하여 패널 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참여 평가절차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 심의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진입 대학인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12개교를 포함하여 총 42개교의 대학이 ACE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었다(<표 4> 참조). 각 대학별 지원액은 평균 20억으로 대학별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며, 재진입 대학의 경우 신규 진입대학 사업의 70% 수준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4> 2010-2015년도 ACE사업 참여 대학(교육부, 2015, 재구성)

연도	평가패널	2010-2015학년도 ACE사업 참여 대학	(재): 재진입대학	
2010	수도권	대 형	성균관대	
		중소형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지 방	대 형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중소형	건양대, 세명대, 신라대, 한동대, 한림대	
2011	수도권	대 형	경희대	
		중소형	서강대, 아주대	
	지 방	대 형	계명대, 전북대, 충북대	
		중소형	동국대 경주, 목포대, 안동대, 우송대, 한밭대	
2012	수도권	대 형	한양대	
		중소형	-	
	지 방	대 형	영남대	
		중소형	금오공과대	
2013		2012년도와 동일		
2014	수도권	대 형	성균관대(재), 중앙대	
		중소형	가톨릭대(재), 서울여대(재), 광운대	
	지 방	대 형	대구가톨릭대(재), 조선대, 충남대	
		중소형	대전대, 동명대, 목원대, 한림대(재), 건양대(재)	
2015	수도권	대 형	가천대, 동국대, 이화여대	
		중소형	서강대(재), 서울시립대(재), 상명대	
	지 방	대 형	계명대(재), 전북대(재), 부산대, 순천향대	
		중소형	동국대경주(재), 한동대(재), 동신대, 부산외대, 순천대, 창원대	

1) ACE사업 참여기준으로는 학부교육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600점(정량, 정성평가 각각 300점씩) 과, 대학에서 제시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서 400점의 비중을 두어 평가함. 이는 정량평가가 30%, 정성평가가 70%로서 100% 정량평가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차이를 보임.

이러한 ACE사업을 통해 정부는 각 대학들이 다양한 모델 창출을 위하여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무엇을(교육의 내용), 어떻게(교육의 방법)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ACE사업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성과지표영역에서 핵심역량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CE사업은 '대학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항목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인재상, 이에 따른 핵심역량 정립 등에 대해 포괄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나 인재상 상정은 핵심역량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대학교육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둘째, ACE사업은 학생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양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학업교과목군'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공교육과정에서는 '대학의 특성 및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등에 부합하는 전공교육과정 구성 및 학생의 역량강화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및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ACE사업 참여 대학들이 널리 소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균관대학교의 '성균핵심역량',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참인재 성장지수', 전북대학교의 '핵심역량인증제', 동국대학교의 'Dream PATH시스템' 등이 있다.

셋째, ACE사업에서는 핵심역량의 제고를 가능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와 연계되어 학생의 핵심역량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할 것'(교육부, 2015)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CE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K-CESA 진단도구를 이용하거나 SHQ 진단시스템, D-CESA 등과 같이 대학의 자체 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처럼 ACE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핵심역량을 어떻게 측정,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고장완 외, 2011)받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학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및 분석영역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분석을 위해 2010-2015학년도 ACE사업 참

여 대학의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계획서' 총 42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영역은 사업계획서의 '대학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부분이다. 각 대학의 인재상은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인재상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분석영역으로 하였다. 단, 제시된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 그 의미가 분명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학부교육 발전에 관한 세부 계획이나 추진방법 등을 참고함으로써 핵심역량 분석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였다.

한편,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전략들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ACE사업에 재진입한 대학의 1기 사업성과(연차)보고서 12부를 포함하여 2010-2015학년도 선정된 각 대학의 사업성과보고서 42부, 총 54부의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재진입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추진결과 및 이전의 ACE사업 시 추진했던 전략들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기의 사업성과보고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영역은 사업성과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실적' 영역이며, 여기서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의 추진계획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2. 분석방법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는 핵심역량을 표현하는 용어는 각기 다르나, 그 의미는 일맥상통한 경우가 많아 공통의 분석준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각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관련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분석기준, 분석단위, 신뢰도 검증 등의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코더(coder)를 선정하였으며, 코더는 연구자 및 교육경력 12년의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1인과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생 1인으로서 총 3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앞서 핵심역량의 하위범주역량 또는 역량요소, 세부내용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각 요소는 핵심역량을 이루는 독립된 부분이며,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성요소(component)'로 개념화하였다.

내용분석의 절차는 먼저,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용어 및 정의, 구성요소를 여러 번 읽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분류시스템(categorization system)을 개발한 후 내용(segment)을 분류하였다.

분류시스템의 항목으로서 '글로벌역량', '융합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역량', '전공직무역량', '인성역량', '리더십역량', '자기관리역량', '문화 예술적 소양' 등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이 항목으로 분류된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간



의 심층논의를 통해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 검증으로 코딩결과와 단순일치비율에 의한 일치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Holisti(1969)의 전통적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코더 간 일치비율은 최소 80%이상이 되어야 한다.’(배현석 역, 2007)는 공식의 기본 전제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모두 80%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냄으로써 최저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5> 코더 간 신뢰도 검증결과

구분	글로벌	융합적 사고	창의성	의사 소통	전공 직무	인성	리더십	자기 관리	문화예술적 소양
단순일치 비율	90.1	84.1	92.8	98.0	80.7	81.6	88.4	85.3	83.9

내용 분석에 의해 1차적으로 도출된 핵심역량은 ‘글로벌역량’, ‘융합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역량’, ‘전공직무역량’, ‘인성역량’, ‘리더십역량’, ‘자기관리역량’, ‘문화예술적 소양’이었다. 그러나 핵심역량의 용어나 구성요소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관계로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역량의 용어와 개념의 정의를 검토하였고, 연구자 간의 재논의를 통하여 ‘문화예술적 소양’은 ‘문화예술역량’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또한, 융합의 정의에 창의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합쳐 ‘창의융합역량’으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수정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다음의 <표 6>과 같이 8가지 핵심역량과 구성요소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표 6> 분석기준

핵심역량	구성요소
1. 글로벌역량	-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 외국어 구사 능력 - 세계시민의식 - 국제적 교류 및 협업능력
2. 창의융합역량	- 창의적 문제해결력 -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 통합적 사고력 - 가치창출능력
3. 의사소통역량	- 경청과 이해능력[듣기·읽기] - 토론과 조정력 - 의사표현 및 전달능력[말하기·글쓰기]
4. 전공직무역량	- 전공지식탐구 및 습득 - 전공지식의 실천적 적용능력 - 정보·자원·기술 활용능력
5. 자기관리역량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 진로설계 및 관리능력 - 정서적 자기조절

핵심역량	구성요소
6. 인성역량	- 도덕성 - 공동체 가치 - 나눔과 배려(봉사)
7. 리더십역량	- 비전제시 및 실행능력 - 조직에 대한 이해 - 팀워크·협동능력 - 대인관계능력
8. 문화예술역량	- 문화향유능력 - 이성과 감성의 조화 - 심미적 안목과 문화적 통찰력

## IV. 연구 결과

### 1.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 1) 대학소재지별 분석

먼저,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분석을 위해 수도권 소재지 ACE사업 참여 대학 14개교와 지방 소재지의 ACE사업 참여대학 28개교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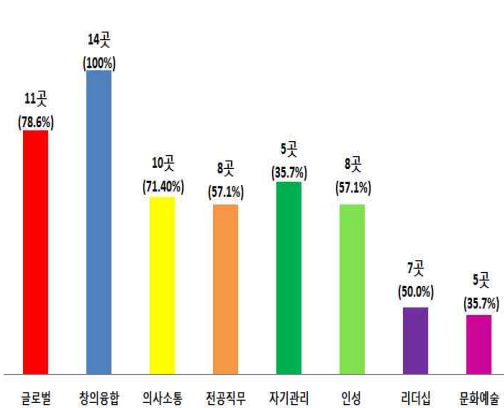
수도권 소재지의 ACE사업 참여대학 14개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창의융합역량'(융합적 창의, 융합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창의지식 융합역량 등 포함)이었으며, 모든 수도권 ACE대학에서 함양되어야 할 핵심역량으로서 강조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글로벌역량'(글로벌 경쟁력, 세계시민의식 등 포함)이 11개교(78.6%)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역량'(의사소통능력, 소통역량 등 포함)이 10개교(71.4%)의 대학에서 강조되어 그 뒤를 이었다.

'전공직무역량'(학문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전문지식 등 포함)과 '인성역량'(공동체 가치, 공존공감의식 등 포함)은 각각 8개교에서 언급되어져, 수도권 ACE사업 참여 대학의 57.1%가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더십역량'(팀워크역량, 대인관계역량 등 포함)은 7개교의 대학에서, '자기관리역량'(도전역량, 학문역량 등 포함)과 '문화예술역량'(문화적 상상력, 문화예술적 소양 등 포함)은 각각 5개교로 35.7%의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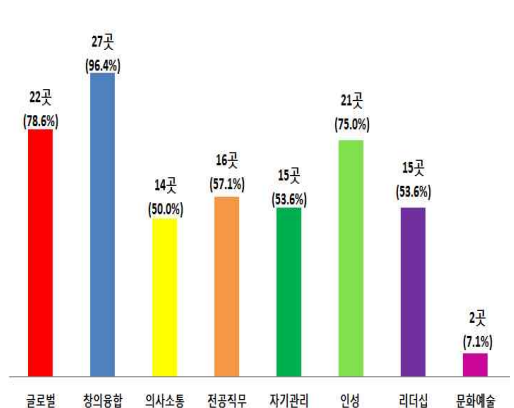
한편, 지방 28개교 ACE사업 참여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강조하는 핵심역량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창의융합역량'(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역량, 융·복합역량, 통섭적 사고역량 등 포함)이었으며, 한 개교의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언급되어져 96.4%로 나타났다. 이어서 '글로벌역량'(외국어 구사능력, 문화적 포용력, 자주적 국제인의 자세, 국제적 소통역량 등 포함)이 22개교의 대학에서 강조되어 78.6%로 나타났으며, '인성역량'(윤리적 가치

관, 자비실천역량, 나눔과 봉사, 이타적 인성역량 등 포함)은 21개교에서 언급되어 75.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직무역량’(직무역량, 전공전문성, 전공실력, 전문지식과 실천적 능력 등 포함)은 16개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역량’(봉사하는 리더십, 도전과 집념의 리더십 역량, 지역형 리더십 등 포함)은 12개교의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10개교의 대학에서 언급한 ‘자기관리역량’(주체적 자립역량, 자기주도역량 등 포함)은 45.5%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역량’이 9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문화예술역량’(폭넓은 교양과 심미안목, 문화역량 등 포함)을 강조하는 대학은 단 2개교(7.1%)뿐이었다.



[그림1] 수도권 ACE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그림2] 지방ACE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위의 도출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들이 기존 문헌에서도 제시되었던 ‘창의성, 의사소통, 전공지식역량, 리더십, 인성’ 등 고등교육에서 육성되어야 할 핵심역량들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학규모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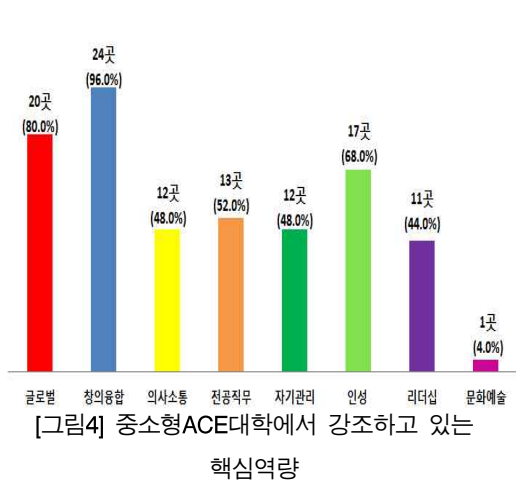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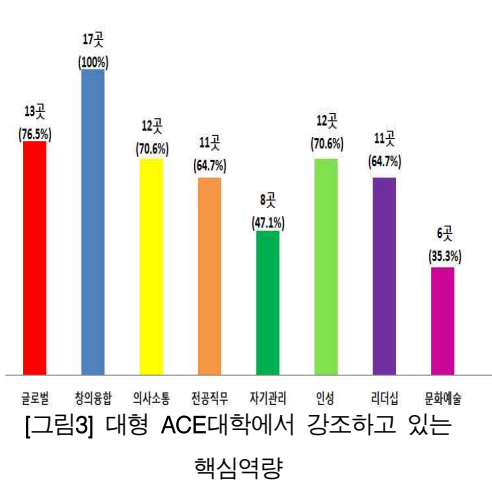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분석을 위해 대형 대학 17곳과 중소형 대학 25곳으로 구분하여 규모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1만 명 이상 대형규모의 ACE사업 참여대학 17개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창의융합역량’(융복합역량, 융합적 문제해결력, 통섭역량 등 포함)으로서 17개교 모두 강조하고 있었다. 이어서 ‘글로벌역량’(국제화능력, 글로벌문화역량, 세계

시민역량 등 포함)을 13개교(76.5%)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역량’(소통역량, 의사소통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포함)과 ‘인성역량’(공존공감역량, 윤리적 가치관, 사회공감역량 포함)은 각각 12개교(71.4%)의 대학에서 강조되었다. 그리고 ‘자기관리역량’(비전도전역량, 자기개발능력, 자기주도역량 등 포함)은 8개교(47.1%)의 대형 ACE대학에서 언급되어졌으며, ‘문화예술역량’(문화적 소양, 폭넓은 안목과 심미안목, 문화적 상상력 등 포함)은 6개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35.3%만이 이 역량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1만 명 미만 중소형 규모의 ACE사업 참여대학 25개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강조하는 핵심역량은 대형 규모의 ACE사업 참여대학과 마찬가지로 ‘창의융합역량’(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창의지식융합역량 등 포함)이었으며, 한 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강조되어져 96.0%로 나타났다. ‘글로벌역량’(외국어 구사능력, 문화적 포용력, 국제적 소통역량 등 포함)은 20개교의 대학에서 강조되어 80.0%로 나타났으며, ‘인성역량’(자비실천역량, 이타적 인성역량 등 포함)은 17개교에서 언급되어 68.0%의 수준을 보였다. ‘의사소통역량’과 ‘자기관리역량’(주체적 자립역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포함)은 각각 12곳의 대학에서 언급되어 48.0%로 나타났고, 끝이어 ‘리더십 역량’이 11개교에서 강조되었다.

‘문화예술역량(문화역량)’을 강조하는 대학은 25개교 중 단 1개교(4.0%)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도출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 3) 주요결과 분석

상기의 종합해보면 ACE사업 참여대학 42개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단계에서 육성되어야 할 역량으로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역량은 한 곳의 대학을 제외한 41개

교(97.6%)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융합역량’이었다. 이것은 융복합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ACE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33개교의 대학에서 제시한 ‘글로벌 역량’이었으며, 수도권과 지방 ACE사업 참여대학에서 강조하는 비율은 78.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각 대학들이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기조정책과 이에 대한 교육책무성을 대학들이 인식하면서 핵심역량 상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글로벌 역량의 하위요소로서 ‘외국어구사능력’을 중시하고 있었다. 지방 대학생들은 어학연수나 유학 등에 대한 기회는 적지만 취업과 관련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 대학들이 사회 수요나 학습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E사업 참여 대학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 핵심역량은 ‘문화예술역량’으로서 소재지별, 규모별 강조비율의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들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화향유의 참여배제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대형규모의 대학보다 중소형 대학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소통역량’에서도 ACE사업 참여 대학 간 소재지별, 규모별 강조비율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은 14곳의 대학 중 10곳의 ACE사업 참여대학에서 강조함으로써 71.4%를 나타내었고, 지방 ACE사업 참여대학은 28곳 중 절반인 14곳의 대학만이 언급하고 있어 50.0%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분석배경을 살펴보면, 수도권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는 하나의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역량과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시한 반면, 지방 ACE사업 참여대학은 어떠한 하나의 핵심역량에 대한 ‘의미’로서 의사소통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W대학의 경우 ‘소프트스킬’이라는 핵심역량을 강조하면서, 이 역량에 대한 의미로서 ‘인성과 윤리의식,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창의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핵심역량에 성격이 다른 여러 역량들을 포함시킨다면 핵심역량의 성격이 모호해짐으로써 어떤 역량인지에 대한 가늠이 불가능해진다. 가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핵심역량에 대한 의미를 정립할 때에는 핵심역량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에서의 교육적 함의

### 1) 융복합 교육내용의 강조

최근 창조경제 논의와 함께 창의성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Hawkins, 2001; 최상덕 외, 2012). 이에 대학들은 융복합 교육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학문영역에 기초한 지식의 한계를 넘어 통합적 관점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홍병선, 2011).

융복합 교육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ACE사업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앞서 분석결과가 보여주듯 거의 모든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핵심역량으로서 창의융합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들로는 융복합 교과목 개발, 기초교과목의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실시, 융복합 교육과정(트랙) 도입과 운영, 창의적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및 프로그램 확대 실시, 전공이수 방식의 다양화 등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크놀로지아트」, 「디지털마케팅」 등과 같은 융복합 성격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으며, 경영학과와 국제학과의 협력 하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이라는 융복합 트랙을 신설하고, 해당학과 학생들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학계열에서 활성화되었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인문사회 계열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부생에게 창의적 수행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서강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사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설계전공과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전공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으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이수과정으로서 학생의 적성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분과학문 체제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접점을 발견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서강대학교, 2015).

그리고 전반적으로 ACE사업 참여대학들은 융합교육의 '기초'가 되는 학문 즉,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등 기초교양교과목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다. 아주대학교는 기초교과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보충반의 경우 시수를 3~4.5시간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초교과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위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기초교과목 강화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한양대학교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와 손잡고 디지털 문화와 예술, 디자인의 이해 등의 문화예술교과목을 개발하여 강좌로 운영하였다. 이렇듯 기초교과목 강화와 더불어 대학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합리적

인 과학적 사유의 능력이 갖추어진 가운데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직관, 도덕적 성찰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총체적 사유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함양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역량 기반 교육에서 창의적 융복합 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실행들이 학생들의 창의 융합역량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귀결되려면, 학습자가 습득한 교육내용이 적절히 조합되어 실제적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성과평가가 역량중심으로 운영이 될 때 학습자는 실제 상황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융합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의 주된 결정자이면서 실질적 운영주체자인 '학과(부)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이루어짐으로써 분과학문의 심화전공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제 간 통합성 및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과평가 또한 지필고사나 자격증 취득 등 기존의 평가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인 통합성과 계속성, 계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수평적, 수직적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합적 교육내용의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역량향상의 관점에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역량기반 교육목표-교육과정 조직-교육평가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핵심역량은 기술이나 인지적 측면, 동기, 판단, 태도, 의지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 및 자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능력의 요소들은 내적인 구조를 이루며, 역동적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발현된다(Rychen & Siganik, 2003). 따라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강의식,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 및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학습경험의 제공이 중요하다(박민정, 2008).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이론 기반의 강의중심 교육에서 실천 기반의 문제 중심교육으로 방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중심학습(PBL),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팀기반학습(TBL), 시뮬레이션 경험 등을 활용한다. 이러한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문제(과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창의적 수행활동을 촉진하면서 논의를 통한 성찰을 유도하는 총체적인 교수활동이기도 하다.

역량은 단계별로 절차화되어 있거나 자동화된 능력이 아니라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동시키고(mobilize), 조정하는(co-ordinate) 능력이다(윤정일 외, 2007).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중심의 설명식 교육방법보다 주어진 과제 및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가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 중요하다(박민정, 2009).

같은 맥락에서 Boyd& Watson(2006)은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업방법을 강조하였다. 첫째, 학생들 자신이나 사회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수업. 둘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셋째,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수업. 넷째, 학생들의 필요나 수준에 부합하는 수업. 다섯째,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새 술은 헌 부대를 터트리듯이 교육내용의 변화에 교육방법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핵심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참신한 학습내용 못지않게 적합한 수업설계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과(전공) 교육목표 속에 핵심역량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며, 역량 수업목표를 반영한 수업내용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수-학습 설계 시엔 낱알의 역량보다는 총체적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되, 구성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천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맥락성, 수행성, 자기주도성, 통합성은 바로 역량중심 접근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실천적 지식과 학습자의 수행성 강조

우리가 직장이든 학교든 일상의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복잡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 속성을 지닌 문제이며, 그 해결에 있어서도 복잡다단한 사고과정을 요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은 학문중심교육을 지향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론적 차원일 뿐, 이것의 실제적 적용이나 정합성 측면은 간과해 왔었다.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력이 한 개인의 능력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에 교육의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역량기반 교육에서는 배운 이론을 기초로 학생들이 특정 맥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강조하는 지식은 개인에게 체화된 전문지식 즉,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다. 이것은 이론을 단순히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경험으로써 재구성한 지식이며, 실제 상황에서 활용되고 생성되어진 지식이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수많은 개인의 경험으로 형성되어지므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내포되어 있으며, 복잡한 맥락에서도 총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선의 판단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및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의 운영, 이론과 실제 현장을 연계한 인턴십 과정 이수, 실생활의 상황과 사건에 의거한 사례기반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플립러닝과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 등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과제(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실천적'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예로서 '행하면서 배운다'라는 학습 원리를 근간으로 한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이 역량 기반 교수-학습방법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수설계이기 때문이다. 액션러닝은 실제적 성격을 지닌 과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협동적인 논의, 실천으로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즉,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기존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수-학습에서 벗어나, 배운 학습내용이 전이될 수 있고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행성을 미리 준비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습득한 이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력해줄 수도 있다.

현재, 스펙 좋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도 현장의 실무능력을 부족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이들을 위한 많은 재교육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이 습득한 전공지식이나 기술이 파편 조각처럼 뇌리에 저장되어 있어 주체적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한 까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통합하여 체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경험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핵심역량은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맥락과 맞물려 사용되는 능력(손민호, 2006)이다. 따라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개인 삶의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질 함양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4) 선도적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모델 운영

대학졸업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됨에 따라 대학에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역량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진미석 외, 2010)되었다.

이에 최상덕 외(2015)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ACE 사업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밝히면서 한 대학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2010년에 실시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이라 할 수 있다. ACE사업은 신청대학에게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관리와 이의 측정 및 향상방안을 제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2010년 ACE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 신청 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핵심역량 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의거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ACE사업 참여 대학이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운영은 할지라도 인재상에 핵심역량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핵심역량과 실천전략 간의 미스매치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몇의 ACE사업 참여 대학은 누구나 선도적 모델이라 인정할 만한 수준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반영하여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강의계획서에 핵심역량을 반영하고, 이를 학습자의 역량개발과 관련지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핵심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과 더불어 이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질 관리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체계적 통합적으로 실행하여 학습자의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조화로운 역량개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모델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 및 취업난 해소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도 타 대학의 벤치마킹을 통해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6) 비교과교육의 활성화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별도로 개설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Non-Credit) 모든 교육활동 및 개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비교과 교육활성화에 대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로 함축될 수 있다. 먼저, ACE사업의 영향이 단연 컸다고 할 수 있다. ACE사업 목적과 비교과교육 내실화라는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각 대학들은 그간 단편적, 산발적, 일회적으로 운영되었던 비교과를 새롭게 구성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박창남, 정원희, 2017).

이러한 ACE사업을 통해 가장 널리 확산된 대표적인 비교과 교육으로 성균관대학교, 목원대학교의 ‘글쓰기 클리닉’,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의 ‘글쓰기센터’, 창원대학교의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등과 같은 의사소통교육 전담부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들 수 있다. 최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의사소통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ACE사업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지원받은 사업비로 의사소통 관련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글쓰기 기반과정(WAC), 글쓰기 튜터링, 글쓰기 공모전, 독서 멘토링, 발표클리닉프로그램, 독서치료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에서는 교양이나 전공과 같은 교과활동만으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배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던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학교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한 인재양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ACE사업 초창기엔 각 대학들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지금은 각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서로 공유, 확산되면서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와 비교과 교육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대가 참인재 성장지수’, 성균관대학교의 ‘성균핵심역량’, 전북대학교의 ‘핵심역량인증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대가 참인재 성장지수’는 모든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에 핵심역량(인성, 창의성, 공동체성)을 일정 비율 부여한다. 교과목인 경우 학점수, 교과목 성적, 역량 비율을, 비교과활동은 등가학점수(비교과활동시간에 비례한 점수), 비교과활동 평가점수, 역량비율을 모두 곱하여 역량별 지수(스텔라)를 산출한다. 이는 교과 교육활동의 성과만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강화된 역량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순천향대학교는 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학과지정 비교과활동에 역량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졸업의 요건기준으로 하는 다면적 졸업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교육의 질 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연구(유지원 외, 2016)에서도 대학수업 외 비교과활동 참여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에 유의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 심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과정과 연계한 통합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비교과 참여 이력관리 및 핵심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교과활동이 어떤 핵심역량을 실제적으로 길러주는지, 개설된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각 대학마다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진단이나 비교과 활동의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진단 및 조사결과를 기초로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확립하여 시행부서나 각 학과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비교과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대학의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가’라는 대학의 교육과정 역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핵심역량’, ‘역량’이라는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곧 대학에서 학문적인 토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진미석, 박경현, 2014).

이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ACE사업은 각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핵심역량을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핵심역량 제고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2015학년도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이의 구현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전략들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 그리고 여러 관련 문헌들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ACE사업 참여 대학 42개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소재지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역량은 ‘창의융합역량’으로서 지방의 한 대학을 제외한 41개교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창의성 함양의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육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ACE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가치창출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진 문·이과 구분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세분화된 전공영역의 문제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학문의 영역 간 경계와 해체, 융합을 통해 기초 창의적 지성능력과 총체적 사유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국내외 대학들이 늘고 있는”(이희용, 2011) 현상이

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역량(33개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잘 언급되어지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도래한 세계화에 부응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대학의 주요 책무로 인식되면서 육성해야 할 역량으로 강조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글로벌 역량의 하위요소로서 ‘외국어구사능력’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지방 대학생들의 어학연수나 유학 등에 대한 협소한 상황 및 취업 관련 외국어 구사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 대학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9개교의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역량’은 예비 사회인으로서 대학생에게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필요성(지희진, 2013)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ACE사업 참여 대학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 ‘문화예술역량’은 소재지별, 규모별 강조비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지방 ACE사업 참여 대학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깔려 있다. 즉,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문화소외지역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로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전인적 성장을 도우며, 융합교육과 창의적 능력을 지향하므로 이에 대한 역량의 육성 방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분석을 통해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교양, 전공, 비교과영역에서의 실천전략들을 살펴본 결과, 실천전략들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과 공유 및 확산의 자리를 통해 대학들이 서로 벤치마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변기용 외(2016)은 특정한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해당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특정한 교육제도나 프로그램을 단편적으로 복제하는 정도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속성, 제도가 시행되는 맥락 등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먼저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특정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각 대학에 맞게 맥락화하는 ‘창조적 모방’이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ACE사업 참여 대학들은 사업의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로 학부교육의 선도적 모델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에서 도출된 교육적 함의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실제 문제해결로의 전이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의 전환, 실천적 지식과 학습자의 수행성 강조 등 박민정(2008)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결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각 대학에서 인재상 및 교육목표를 반영한 핵심역량을 상정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의 분석결과를 통해 현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핵심역량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여 향후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ACE사업 참여 대학에서는 이성적 속성을 지닌 핵심역량을 강조한 나머지 감성적 속성의 핵심역량(문화예술, 감성)은 경시하고 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전인격적 인성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핵심역량 교육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핵심역량 개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인 ACE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도적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모델 또한 ACE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방향제시, 교육과정 모형개발 등을 통해 핵심역량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장완, 주정훈, 송영숙, 김효선, 김명숙, 김현진(2011). 성균핵심역량선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부(2015). 2015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시행계획(안). 세종: 교육부 대학재정과.
- 김동일, 오현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2009).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옥(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RR 2003-15.
- 박민정(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4), 173-197.
- 박민정(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분석: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7(4), 71-94.
- 박창남, 정원희(2017).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K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39-71.
- 변기용, 이석열, 서담이(2016).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성공요인과 전략: 조직변화 관점의 적용.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3-60, 10월 29일,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서강대학교(2015). 학생설계전공 가이드북: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모든 것. 서울: 서강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 소경희(2010). 역량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교양교육의 과제. 제6회 역량기반교육세미나, 35-66, 9월 10일,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 손민호(2006).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competence)의 의미: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4), 1-25.
- 유지원, 류다현, 이미나(2015).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교육과학연구**, 46(2), 31-56.
-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장수명(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RR 2002-19.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RR 2004-11.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이병식, 최정윤(2008). 다층 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학교육과정과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한국교육**, 35(2), 243-266.

- 이희용(2011). 지식융합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5(2), 11-37.
- 지희진(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5), 433-466.
- 진미석, 손유미, 임언, 송창용, 오석영(2010). 2010년도 대학생 핵심역량진단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이수영, 임언, 유한구, 채창균(2010).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 진미석, 박경현(2014). 대학생 핵심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역량의 진단과 특성. **국어교육**, 146, 25-56.
- 최상덕, 김진영, 반상진, 이강주, 이수정, 최현영(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11-01.
-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김영철, 장상현, 최영섭(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한국교육개발원 RR 2013-20.
- 최상덕, 이상은, 고장완, 김경숙, 김기현(2015).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Ⅲ):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RR 2015-23.
- 최정운, 이병식(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최정운, 채재은(2013).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 5, 2009~2013 실행가능성평가 종합. 한국교육개발원 RR 2013-21.
- ATC21S(2015). *The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Retrieved October 15, 2014, from <http://atc21s.org/>
- Boyd, S., & Watson, V.(2006). *Shifting the frame: Exploring integration of the key competencies at six normal schools*. New Zealand: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 Research.
- Candy, P. C.(2000). Knowledge navigators and lifelong learners: Producing graduate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19(3), 261-277.
- Campbell, C. and M. van der Wende(2000).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trends in quality assurance for European higher education*. Helsinki: ENQA.
- Center for Quality Assurance in International Education(2001). *Quality assurance of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in the global context*(on CD-ROM). Washington: DC CQAIE.
- Riffe, Daniel, Lacy, Stephen, Fico, Frederick G(2005). *Analyzing media messages*. 배현석 역 (2007). 미디어내용분석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wkins, J. (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usiness Series.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January 25, 2015 from [www.oecd.org/edu/statistics/deseeco](http://www.oecd.org/edu/statistics/deseeco).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

\* 논문접수 2017년 2월 3일 / 1차 심사 2017년 3월 10일 / 게재승인 2017년 6월 14일

\* 이민정: 경남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마산대학교 객원교수, 창원대학교 ACE사업단 연구교수로 일하였으며, 현재는 경주동국대학교 교육역량개발원에서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과정의 혁신, 핵심역량 기반 수업재설계, 수업단위에서의 핵심역량 효과성 측정, 질적연구방법론 등이다.

\* E-mail: minjunglee@changwon.ac.kr

## Abstract

## The Meaning of Education in the Core Competencies and Practice Strategies of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ACE Project

Lee, Minjung\*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core competencies that were emphasized by forty-two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ACE project from 2010 to 2015 and explor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trategies for realization.

After analyzing core competencies which are marked by ACE university, 14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28 in the region from 2010 to 2015,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wa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to be developed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AC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uggested 'global competence' in 33 places after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and ACE universities. As 'cultural art competency' is the lowest suggested core competencies both AC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

Next, they explored strategie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to implement the core competencies that ACE universities emphasize. ACE universities have been carrying out a various practical strategy to promote student's core competencies. The practical strategies based on core competencies have been pointed out contents of convergence education which build up creativity and ability of overall thinking, switching over teaching-learning method to achieve learner's practical ability such as action learning, PBL, TBL, and CBL. From education and educational curriculum to achievement, emphasizing practical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learner. Also, it brought innovative changes of an institutional aspect like bachelor's degree or teacher system. As it activates the establishment of online education platform,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 is remarkable considering their focus on competence improvement for the futur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is research is what suggests more specific and more visualized theoretical alternative in the oper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based core competencies through analyzing it. ACE universities emphasize that with consideration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practical strategy. Therefore, the result can be utilized as positive data which can be referred in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core competencies curriculum at the universities hereafter.

Key words: Advanced of College Education,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implication.